

〈 추석 연휴 생활방역 수칙 〉

※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철저한 준수 필요

1. 이동할 때 (귀성, 귀경)

- ▶ 발열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, 고향·친지 방문 등 하지 않기
 - * 38도 이상 고열 지속, 증상 악화 시 콜센터(1399, 지역번호+120)나 보건소 문의하기
- ▶ 가급적 개인차량 이용
- ▶ 휴게소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
- ▶ 휴게소 실내,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 두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상시 착용
- ▶ 휴게소에서도 사람 간 간격 2m(최소 1m) 이상 유지

① 기차역, 버스터미널 등에서

- ▶ 가급적 좌석은 사전 온라인 예약, 비대면 서비스(모바일 체크인 등) 우선하여 이용
 - * 좌석 예매 시 가급적 한 좌석 띄워 예매
- ▶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
- ▶ 대화는 자제
- ▶ 지정된 장소에서만 음식 섭취, 기차·버스 안에서 먹을 간식 구입은 자제
- ▶ 흡연실, 화장실 줄 설 때 등 사람 간 2m(최소 1m) 간격 두기

② 기차·버스 등 안에서

- ▶ 마스크 상시 착용하기 ▶ 음식 섭취하지 않기
- ▶ 대화 및 전화 통화 자제하되,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작은 목소리로 하기

2. 고향 집에서

① 실천할 것

- ▶ 고향·친지 집 방문 시, 머무르는 시간(기간)은 가급적 짧게
- ▶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만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, 손 씻기 등 개인방역 철저
- ▶ 집안에서도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착용 권고
 - * 각 지역에서 모인 가족이 밀접하게 지내므로 가족 보호를 위해 마스크 착용 권고

- ▶ 직계가족만 만날 것을 권고
- ▶ 식사 시에는 개인 접시와 배식 수저 등 사용하여 덜어 먹기
- ▶ 반가움은 악수·포옹보다는 목례로 표현하기
- ▶ 하루에 2번 이상 자주 환기하기
- ▶ 손이 많이 닿는 곳(리모컨, 방문 손잡이, 욕실 등)은 하루에 1번 이상 소독하기

② 피할 것

- ▶ 발열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, 고향·친지 방문하지 않기
- ▶ 가족·친지 간 밀폐·밀집·밀접 장소(유흥시설, 노래방 등)에는 가지 않기
- ▶ 직계가족 외의 방문은 자제하기
 - * 특히 어르신 등 고위험군이 계신 가정은 외부인의 방문에 주의하기
- ▶ 소리지르기, 노래부르기 등 침방울 튀이 발생하는 행동은 자제하기

3. 성묘·봉안시설 등 방문할 때

① 실천할 것

- ▶ 혼잡하지 않은 날짜와 시간 선택하기
- ▶ 최소 인원으로 가서 가급적 짧은 시간 머무르기
 - * 봉안시설의 안치실에서는 20분 이상 머물지 않기
- ▶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
- ▶ 줄 설 때, 이동할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2m(최소 1m) 이상의 거리 두기

② 피할 것

- ▶ 발열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추모관 방문 등 하지 않기
- ▶ 명절기간 동안 봉안시설의 제례실 이용하지 않기
- ▶ 실내에서는 음식 섭취하지 않기

4. 귀경·귀가 후

- ▶ 집에 머무르며 발열·호흡기 증상 등 관찰하기